____월 ____일

다음은 기사의 일부분입니다. 소리 내어 기사를 읽고 또박또박 베껴 써 보세요.

개띠 해를 맞아 개가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하나 더 늘었다.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 1일(현지 시각) 영국 중서부 우스터셔주의 말번 힐에 개똥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가로등이 등장했다고 보도했다.

원리는 간단하다. 가로등 아래에는 대형 세탁기만 한 개똥 수거 장치가 있다. 산책길에 애완견이 볼일을 보면 주인이 개똥을 수거해 이 장치에 넣고 핸들을 돌리면 된다. 이러면 개똥이 분쇄되고 장치 내부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다.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가스등을 밝힐 메탄이 나온다. 남는 것은 비료로 쓸 수 있다. (생략)

– 조선일보 2018년 1월 3일

이 기사의 제목은 무엇일까요? 알맞은 제목을 써 보세요.

정답은 100쪽에 있습니다.

오늘 읽은 신문 기사 중 마음에 드는 문장을 써 보세요.